



아산 데일리 폴 조사결과 요약

조사개요

『아산정책연구원 (원장 함재봉)』은 2012년 8월부터 '3일 순환평균(3-day Rolling Average)' 조사기법을 이용한 『아산 데일리 폴 (The Asan Daily Poll)』을 시작했다. 『아산 데일리 폴』은 매일 국가/개인 경제상황, 국가안보, 기타 사회이슈에 대한 여론을 조사하고 있다. 이 조사는 휴대전화와 유선전화를 사용한 임의번호 걸기(Random Digit Dialing, RDD)방식으로 조사대상을 선정했다. 조사대상은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이고, 표집오차는 95% 신뢰구간에서 $\pm 3.1\%$ 이다. 아래는 2013년 4월 16일(화)부터 4월 30일(화)까지의 조사결과이다.

4월 3·4주차 주요 조사결과

- ◇ 국가안보에 대한 부정적 인식 평균: 63.7%(4월 1·2주차 평균: 68.9%)
- ◇ 한국사회 주요이슈: 남북관계 및 안보 > 일자리 창출 > 경제 민주화 > 소득재분배 순
- ◇ 한국인의 통일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 인식은 예년에 비해 감소
- ◇ 한국인은 북한을 '우리(12.6%)'·'이웃(24.7%)'보다는 '남(15.4%)'이나 '적(30.6%)'으로 인식
- ◇ 남북관계 악화 책임 국가: 북한 > 우리나라 > 미국 > 중국 순
- ◇ 남북 경협에 대한 의견: '지속되어야 한다' 58.5%
- ◇ 축구경기 A-매치 응원할 국가:
북한(38.1%) vs 미국(57.7%), 북한(71.8%) vs 일본(20.6%),
미국(77.2%) vs 중국(16.8%), 중국(74.4%) vs 일본(1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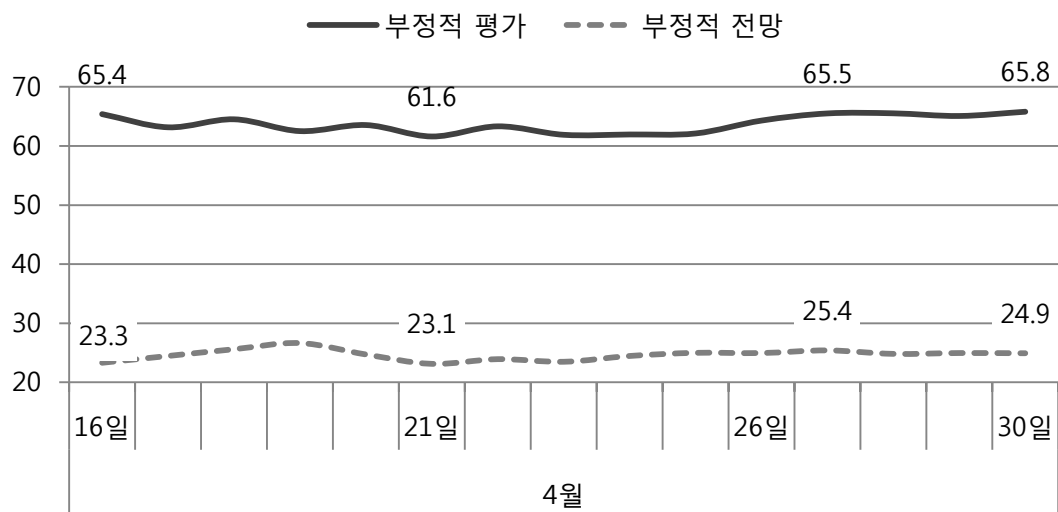
4월 3·4주차 주요이슈

- ◇ 4월 17일 청와대, 최문기(미래창조부)·윤진숙(해수부) 장관 임명
- ◇ 4월 20일 북한, 미국과 군축회담 가능, 비핵화 회담 불가 선언
- ◇ 4월 21일 일본 부총리, 야스쿠니 신사 참배
- ◇ 4월 23일 일본 국회의원, 야스쿠니 신사 집단 참배
- ◇ 4월 24일 4.24 보궐선거, 한미원자력협정 2년 연장
- ◇ 4월 25일 무소속 안철수, 새누리당 김무성·이완구 국회의원 재보선 당선
정부, 북에 개성공단 관련 남북 실무회담 제의
- ◇ 4월 26일 북한, 개성공단 실무회담 제의 거절
정부, 개성공단 잔류인원 전원 철수 결정
외통위, '일본 신사참배 및 침략전쟁 부인 망언 규탄 결의안' 채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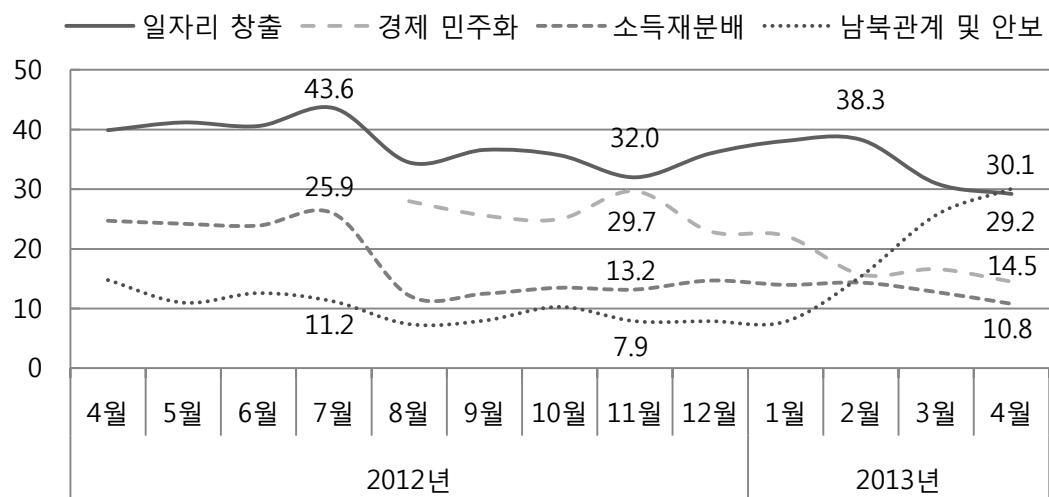
■ 국가안보 평가 및 전망

4월 초, 북한의 영변 핵시설 재가동과 개성공단 폐쇄 등이 잇따랐고 국가안보를 부정적으로 보는 한국인의 비율은 올해 들어 가장 높게 나타났다(4월 7일 73.5%). 이후 북한의 추가 위협이 크게 대두되지 않으며 국가안보 상황을 부정적으로 보는 비율이 21일 61.6%까지 떨어졌다. 4월 말 정부의 개성공단 정상화 관련 남북 실무회의 제안을 북한이 거절하며 개성공단 철수가 시작됐고, 국가안보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소폭 상승했다(30일 65.8%).



■ 한국사회 주요이슈 (4/14~16)

안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뜨겁다. 4월, 남북관계 및 안보를 한국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로 꼽은 응답자가 30.1%로 나타났다. 안보이슈가 지난 1년간 최우선 과제로 여겨지던 일자리 창출(29.2%)을 처음으로 앞섰다. 지난 2월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남북관계 및 안보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상승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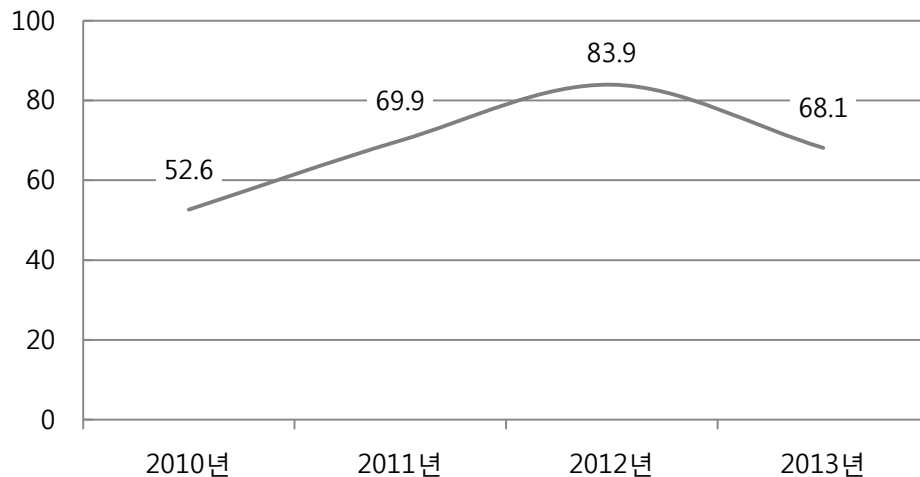




■ 통일에 대한 관심 (4/20~22)

2010년 이후 상승하던 통일에 대한 관심이 남북간 대치가 격화되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에서 2012년까지의 아산연례조사 결과 통일에 대한 국민의 관심은 증가 추이를 보였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지난해에 비해 통일에 대한 관심이 15.8% 감소한 68.1%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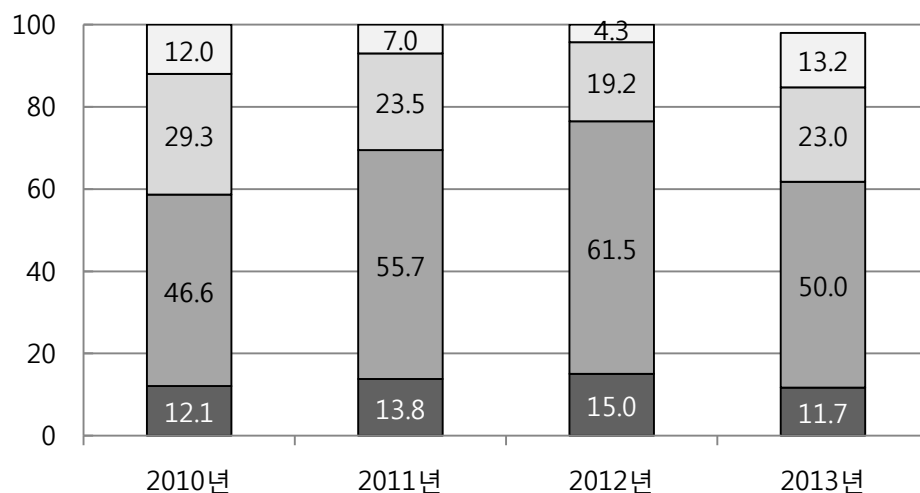
연도별 통일에 대한 관심도 (%)



■ 통일의 필요성 인식 (4/20~22)

지난 3년간 통일을 해야 한다는 여론은 확대되고 있었지만(2010년: 58.7% → 2012년: 76.5%), 올해 그 기세가 한 풀 꺾이며 한국인의 통일 필요성 인식이 2010년 수준으로 돌아갔다(61.7%). 통일이 전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응답자의 비율 역시 지난해에 비해 8.9% 증가하며 13.2%가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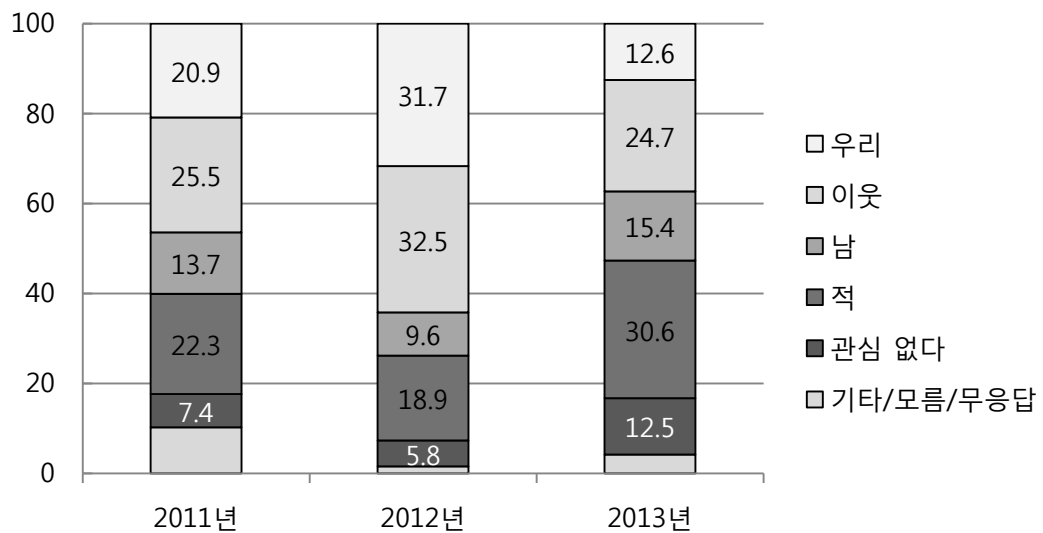
■가급적 빨리 ■속도 조절해 통일 □서두를 필요 없음 □통일 불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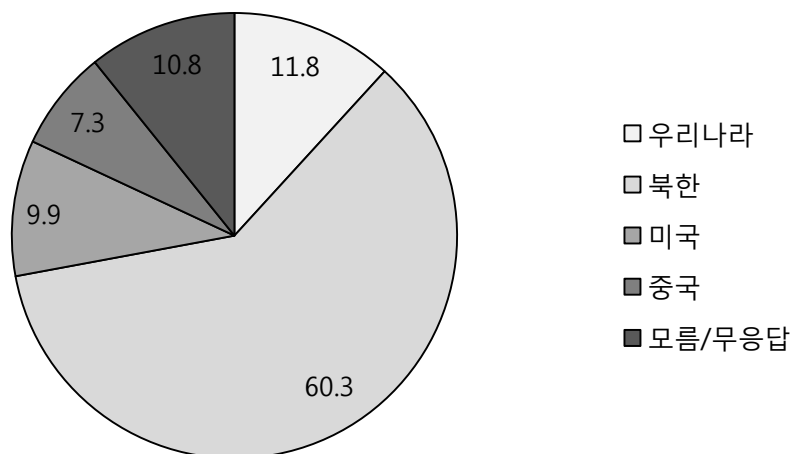
■ 북한에 대한 인식 (4/20~22)

우리 국민은 북한을 '우리·이웃'보다는 '적'이나 '남'으로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북한을 '우리' 또는 '이웃'으로 보는 한국인의 비율은 64.2%였으나, 올해에는 그 비율이 26.9% 감소하며 37.3%가 됐다. 국민의 열 명 중 세 명은 북한을 '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북한에 관심이 없는 응답자 역시 12.5%로 예년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 남북관계 악화 책임 소재 (4/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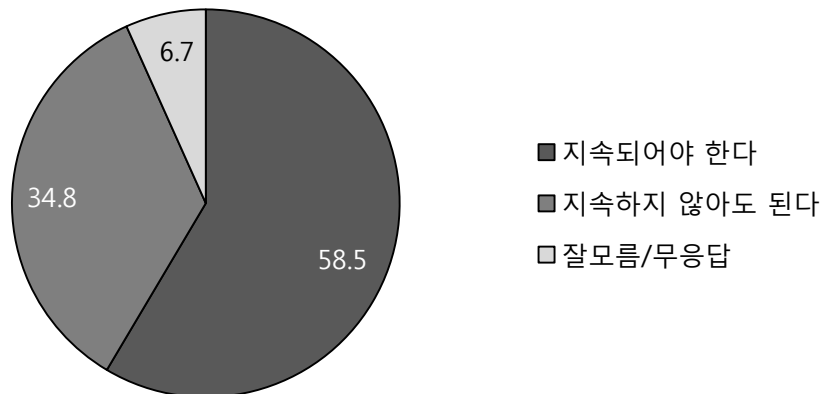
우리 국민의 열에 여섯은 북한이 남북관계 악화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했다. 단, 연령 대별로 남북관계 악화에 두 번째로 책임이 있는 국가를 다르게 봤다. 20대(13.1%)와 40대 (14.7%)는 미국이, 30대(16.3%)는 우리나라가 책임이 있다고 했다. 50대와 60대 이상 세대는 다른 세대에 비해 북한의 책임이 더 크다고 보았다.





■ 남북 경협에 대한 의견 (4/23~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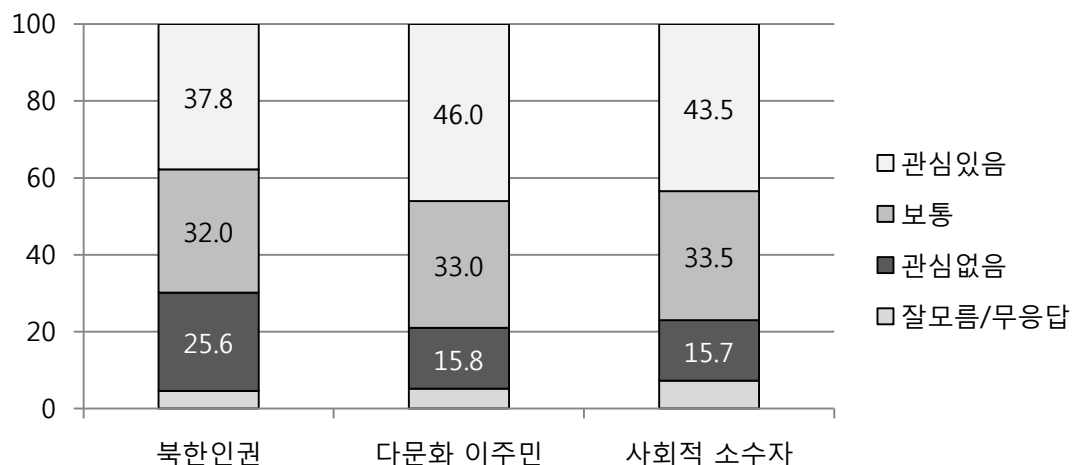
응답자에게 남북간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도 경제협력이 지속되어야 하는지 물어본 결과, 지속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북경협 지속에 대한 의견은 연령대별로 차이를 보였는데, 40대(68.1%)와 50대(63.4%)는 20대(51.5%)나 60대 이상(52.8%)에 비해 남북경협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었다. 30대는 55.7%가 경협이 지속돼야 한다고 했다.



■ 북한 인권에 대한 인식 (4/26~28)

한국인은 북한인권 문제보다 국내의 다문화 이주민과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에 더 관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 이주민,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에 대한 관심이 북한주민의 인권보다 약 6~8% 정도 더 높았다. 피부와 와 닿는 국내 사회 문제에 더 민감하게 반응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모든 주제에서 본인의 성향을 진보나 보수로 답한 응답자가 중도성향 응답자에 비해 인권문제에 더 큰 관심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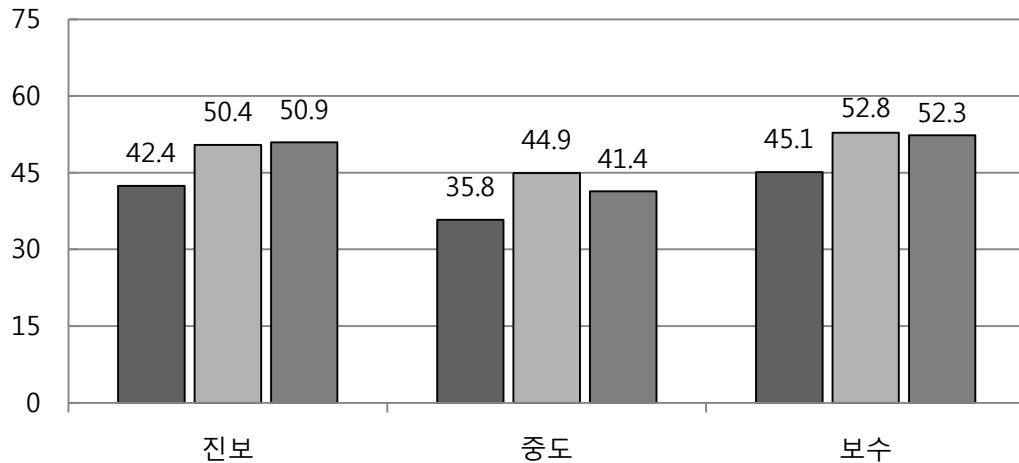
주제별 인권에 대한 인식





이념성향별 인권문제에 대한 관심 정도

■ 북한인권 ■ 다문화 이주민 ■ 사회적 소수자



■ 축구경기를 통해 본 국제관계 (4/26~28)

두 국가간 축구경기가 있을 경우 어느 국가를 응원하겠냐는 질문을 통해 각 국가에 대한 호감도를 살펴봤다. 최근 북한에 대한 호감도가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으나¹ 축구경기에 있어서는 중국, 일본보다 북한을 응원하겠다는 한국인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조사 대상 국가 중 오직 미국만이 우리 국민으로부터 북한보다 더 많은 응원을 받았다.

미국은 중국이나 일본, 러시아에 비해 한국인으로부터 압도적인 응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축구 경기에 있어 일본은 북한이나 중국보다 한국인에게 더 응원을 받지 못했다. 국가간 축구경기 응원에 있어서는 여전히 민족주의적 성향이 나타나고 있었다.

북한 vs. 주요국가							
북한	미국	북한	중국	북한	일본	북한	러시아
38.1	57.7	54.8	37.4	71.8	20.6	65.2	27.1

주요국가간 축구경기 시 응원할 국가							
미국	중국	미국	일본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77.2	16.8	91.0	5.7	84.0	10.0	74.4	17.3

¹ 아산 데일리폴 조사결과 요약 4월 1·2주차 참고(국가 호감도 변화). 북한에 대한 우리 국민의 호감도는 지난 1년 사이 급락하며 미국, 일본, 중국보다 더 낮게 나타났다.



‘3일 순환평균(3-day rolling average)’이란?

주요 정치사회 지표에 대한 조사결과를 매일 발표하기 위해 실사(data gathering)를 3일로 나누어 실시하는 방법이다. 실사와 자료발표의 순환이 3일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매일 발표되는 정치사회 지표는 직전 3일간 조사된 결과를 의미한다.

- ◆ 자료 인용 시 반드시 출처(‘아산정책연구원 『아산 데일리 폴』’)를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지난 보고서는 아산정책연구원 홈페이지 출간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관련 문의: 강충구 연구원(02) 3701-7343, ckkang@asaninst.org
이의철 연구원(02) 3701-7337, eclee@asaninst.org